

등록번호 : 경기매00107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발행일 : 2012. 6. 1. 간행 : 격월간 발행인 : 박공영
 편집인 : 박공영 발행처 : 우리네
 본 사 : 경기도 이천시 도가령 진성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통영영업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매로 224 청우빌딩 117
 TEL. 031)712-7001 FAX. 031)712-7009

정기간행물 등록 33호 Vol. 55 1 우리네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공공의 정원, 공공의 선택

식생매트, 양묘로의 과제와 발전전에 대하여 연재1

대한민국은 매우 역동성 있는 나라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리고 공공의 정원 최고의 투자 국가(?)가 된 나라다. 일반적인 정원을 구성할 때 필요한 관목 혹은 숙근성의 조경식물은 초기에는 뿌리를 땅에서 캐내어 유통하게 된다. 이후, 시장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 작은 포트에서 생산, 어린유묘기 상태로 유통하게 되며 점차 발전, 안정되고 고급화 되면 용기가 큰 화분에 그 식물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재배되어 유통된다. 현재 심지어 바로 완성된 정원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길러 판매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정원이 발전되고 유명한 영국,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조경용 정원식물 용기재배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식물에 따른 키와 폭, 그리고 생태적인 특성에 맞추어 용기의 크기가 결정되고 일정 재배기간을 거친 상품이 유통된다. 따라서 잘 재배되어 유통되는 식물을 구입해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혹은 배치를 하는 것으로도 정원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보통 화분 크기는 직경 21cm~30cm 정도가 정원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분화용의 경우 그보다 작은 포트의 규격식물이 유통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식생매트라는 규격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클시의 경우 공공의 정원에 식재 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생매트로 설계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역시 한국의 역동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식생매트 개념과 해외 선진국의 정원 완성형 대형 포트와는 매우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생매트는 각 회사와 농가마다 조금씩 다른 규격으로 생산 출하하고 있지만 흔히, 예전의 뿌리상태로 유

통되던 시기에 많이 이용된 모판상자에 네트나 기타 방법으로 배양토를 채우고 종자를 파종하거나 삼목, 트레이 모 등을 심고, 재배 후 남품된다. 그리고 현장에 반입된 후 매트상태로 차곡차곡 밀착시켜 식재하면 가장 왕성한 최상의 정원모습이 완성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공공의 정원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종류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죽어 없어지거나 잡초밭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일년초이거나 정해진 짧은 기간동안 조성되는 축제장 공공정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효과를 위해서 가능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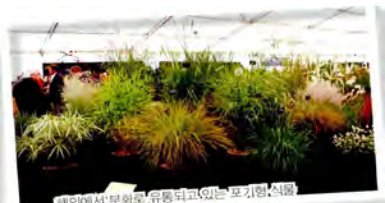
하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

자연에서의 식물은 많은 다른 식물들과 함께 살아간다. 적당한 경쟁과 공존, 그리고 생태적, 환경적 요건까지도 깨안으며 건강한 생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식생매트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원에 있어 식물별 재배규격과 방법에 대한 검토는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을 예상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성숙한 공공의 정원, 아니 우리나라의 전체 정원문화의 발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하는 바램에이다. ☺

(다음호에 계속)



해와에서 매트로 유통되고있는 연니향식물



해와에서 분화로 유통되고있는 포기향식물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시리즈 로열티 수입국에서 수출국 지위 획득



우리나라는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반열에 오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은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특히, 반도체와 가전제품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한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인 제품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경용 식물에 포함한 많은 화훼종은 선진국에서 개발 되어 도입된 품종이 대부분 차지한다. 2009년 품종보호 대상작물 전면 확대에 따라 로열티 지불은 당연시 되어 이제 우리의 정원과 조경시장에서도 매년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의 조경 시장은 이름은 야생화 시장이라지만 대부분 원예용 식물이 많고 최근에는 새로운 신품종의 적용이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숙근초(야생화)중 우리 자생의 식물은 점차 줄어들고 그들을 이용한 새로운 신품종이거나 해외 도입 신품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인주택정원이 붐을 타면서는 해외의 고급 품종들이 일반 야생화에 비하여 매우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소비 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자생식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 조경용 야생화 시장이 이제 빠르게 품종화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꽃은 2000년 회사설립 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품종개발과 조경기술 창조에 주력했다. 국제원예화훼박람회로 대표적인 네덜란드 HORTI FAIR에 2004년 참가를 하면서 해외시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독일의 IPM, 일본의 IFEX에 참가하였다. 직접 해외 소비자들과 바이어를 상대로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선진국의 시장동향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품목과 경쟁력 있는 품종 등을 수집 연구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육성에 집중하고 신품종 개발을 지속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2009년 드디어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이 일본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되었다. 또한 유럽 화훼의 본 고장 네덜란드에 시험재배계약이 이루어져 왕상록단피매랭이와 우리드림시리즈는 본격적인 세계화에 시동을 걸어 좋은 성적으로 로열티 계약요구가 접수되어 현재 협의 중이다. 그리고 미국시장에서도 현재 시험재배중인데 현재까지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꽃이 해외 시장에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것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대형 종묘회사가 외국의 다국적 회사에 매각되어 종자주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리고 화훼품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의 작은 회사가 유럽과 미국 일본을 상대로 품종로열티를 수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로열티 수입국에서 로열티 수출국으로 바꾸어놓은 일대 사건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번 우리의 로열티 수출과 관련한 많은 품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우선 코레옵시스속(*Coreopsis spp.*) 식물의 개량으로 탄생된 우리드림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코레옵시스속은 100여 종의 1년생초와 다년생초로 이루어져 있고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대부분 두상화로 피며 간혹 겹꽃으로 피는 것이 있다. 국내에 길러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류는 금계국(*Coreopsis lanceolata*)으로 다년생으로 보통 길가에 노랗게 무리지어 피고, 기생초(*Coreopsis tinctoria*)는 일년생으로 알록달록한 화색으로 피어난다. 그리고 최근 도입되어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인 숙근코스모스, 예기노랑금계국(*Coreopsis verticillata*)으로 불리는 품종들은 화색이 많은 노랑색이고 특히 장기간 개화하는 특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분홍색과 빨강으로 대표되는 로제아(*Coreopsis rosea*)종은 우리가 흔히 보는 코스모스와 생김새는 비슷한데 꽃이 아주 작고 왜성이며 이들을 5월부터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장기간 개화하는 식물로 세계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식물이다.

현재 우리꽃이 육성한 코레옵시스속 식물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세계최고라 부를 만한 계통이 *Coreopsis rosea*이다. 코레옵시스 로세아는 미국의 작은 농장에서 개발되었지만 2005년 시장에 선보이면서 급속하게 성장한 품종으로 현재 1년 평균 로열티 수입만도 65억이나 된다. 물론 그 품목을 개발한 [테라노바]라는 회사는 코레옵시스에 관한 매우 유명한 회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품종특성과 종류에 있어서 이미 우리꽃이

한수 위의 육성성과를 굳혔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꽃이 코레옵시스속으로 품종등록하거나 출원된 품종수가 우리드림시리즈를 비롯하여 리본시리즈, 미니블시리즈 그리고 독자적인 색이나 특성을 가지는 품종들을 대거 육성하여 세트화 할 수 있었고 특히 맑은 노랑과 하양의 화색은 아직 어떤 회사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화훼종자산업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품종개발에 관련한 한계는 화훼업계에 종사하는 농민과 육성자 그리고 모든 관련회사 혹은 학계에 있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시장의 장벽이란 넘을 수 없는 골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용으로 개발되는 수입대체품종은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시장성의 문제로 농민들의 외면을 받기 일쑤여서 그 성과와 노력이 퇴색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꽃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시장에서 배웠다. 많은

외국의 큰 회사가 관심을 두지 않는, 혹은 새로운 품목, 혹은 잡초와 같은 원종 그리고 지역적 고려가 있는 종들의 특성을 결합하거나 돌연변이 유기, 선발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시장 공략이라는 과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꽃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연구투자를 늘려 연구중심회사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자주권과 우리농민의 자존심회복에 사활을 걸고 노력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꽃이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인의 정원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해외여행에서 우리의 자동차, 기업들을 접했을 때 맛보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을 우리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꽃이 만들어 세계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시리즈

■특성

- ① 우리드림시리즈는 우리꽃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국화과의 다년생으로 연중 개화하는 품종이다.
- ②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호광성식물로 증지를 많이 주고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하므로 퇴비를 많이 하고 추비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더 좋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 ③ 토양은 통기성과 보비력이 좋은 토양이 좋고 화분재배시에는 일반 원예용상토에 원료성 비료를 충분히 주어 재배한다.
- ④ 많은 꽃이 한개체에 개화하고 지면서 다시 개화하므로 꽃이 만개 후 지기시작 할때 꽃대를 잘라준 약 2주 후 다시 피어나므로 축제나 행사가 있을 시에는 약 3주전 커팅하여 만개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 ⑤ 화색이 매우 다양하므로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적으로 재배 가능하고 특히 혼합하여 식재하거나 다른 식물과 함께 식재해도 매우 좋다.
- ⑥ 다년생이지만 하지만 남부지방을 제외한 곳에서는 겨울철 보온을 하거나 매년봄 다시 심는 것이 더 유리하다.
- ⑦ 초형은 대형분형대로 생육이 매우 강건해 이른 봄 1도기만 심어도 개화가 시작되는 5월 말이전 직경 폭 60cm, 높이 40~50cm 정도의 둥근 분형의 초형을 이루게 된다.



생산자를 위한 노하우

우리드림시리즈를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농민은 반드시 우리꽃과 계약 후 재배해야 하며 우리꽃이 제공하는 팻말을 부착하여 출하해야 한다. 특히 생산 규칙, 수량을 지키 시장에 출하해야 하며 재배농가 전체의 소득증대에 공동노력해야 한다.

🌱 생산자에게 드리는 팁

생신의 경우 화분크기에 따른 생산방법이 다른데 화분 직경이 20cm이상인 경우 3개의 트레이 요를 교묘하게 심어 서늘하고 강한 조건에서 재배하는 것이 분지수를 늘리고 키를 낮출 수 있으므로 서리의 해가 없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하거나 노지재배가 상품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4치포트로 재배할 경우는 언제든지 재배가능한데 새로운 가지 2~30cm를 잘라 3개씩 직접삽입 생산하는데 직접 후 약 30일 이면 출하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의 색상을 함께 혼합하여 생산하면 더욱 아름다운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원예용 신토나 인공용 토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호성비료를 다른 혼합하는 것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꽃 2012 고양꽃박람회

다양한 꽃,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도시농업을 전시하다!



▲수직정원 '벽화수' 앞에서 사진촬영하는 관람객들



▲가우라와 고급 일년초를 가지고 피스텔토으로 연출한 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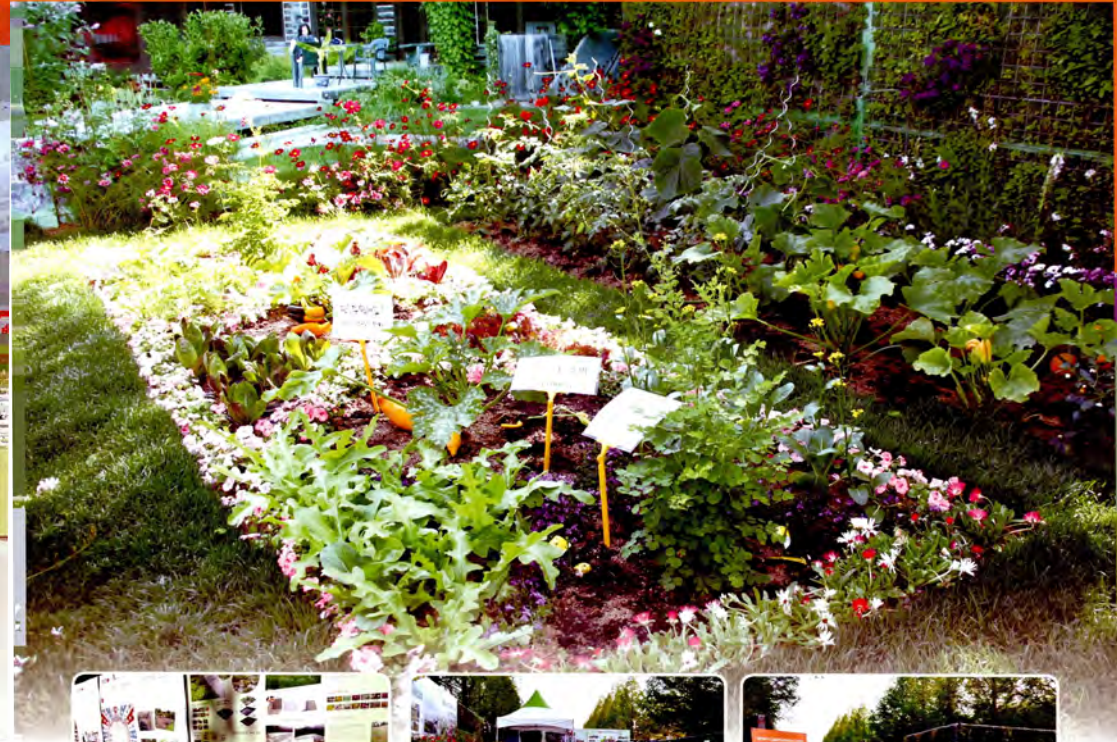
▲전시판매되고 있는 호스티아 품종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26일부터 5월 13일까지 18일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이번에 특별 초청된 '우리꽃'은 야외에 부스를 마련하여 도시농업,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혼합식재 화단, 수직정원 벽화수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도시농업전문 온라인 쇼핑몰 '가든조아'를 선보였다.

일산 호수공원 3번째이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초입에 암석가든이 눈에 들어온다. 고양꽃박람회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일산호수공원내에 '우리꽃'에서 시공한 ARI가든이다. 돌과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활력된 봄꽃과 풀림이 박람회 관람객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번 눈길을 모으는 곳이 보인다. 바로 행사장 중앙에 이번 행사를 위해 설치한 벽화수이다. 황금조팝, 백문동, 상록잔디 패랭이, 금강애기귀린초, 꽃잔디, 백두산애기귀린초 등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아름다운 수직정원을 연출하였고 많은 관람객들이 신기해하며 직접 만져보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벽화수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포토존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우리꽃'의 메인 부스는 호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스외곽은 벽화수를 이용하여 파티션형식으로 경계를 만들어 좌우측 입출구를 통하여 부스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입구 초입화단에는 숙근초와 일년초를 혼합하여 조성하였고 특히 강렬한 색깔의 양귀비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내부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구성하였는데 먼저 한 파트는 외곽에 일년초를 중심으로 숙근초와 혼합한 화단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사각 화단에 가우라를 중심으로 두고 고급 일년초를 이용, 혼성식재하여 피스텔토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맞는 집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호박, 고추, 오이, 쌈채소 등과 꽃을 이용하여 도심속에서 눈으로 즐기는 것을



▲전시판매되고 있는 도시농업관련 상품들



▲비나나호박



▲꿀든불호박

넘어서 직접 길러서 수확할 수 있는 도심화단을 재연해 보였다. 특히 호박 품종중 노란색의 바나나호박과 꿀든불호박은 그 색깔과 형태적으로 색달라 관람객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사실 이 외에도 집에서 쉽게 길러 수 있으면서 식용이 가능하고 관상적 가치가 있는 많은 채소류들이 있다. 앞으로 도시농업전문 온라인 쇼핑몰 '가든조아'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숙근초와 일년초로 구성된 화단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의 이동동선에 맞추어 열식한 때인 코스모스가 신기한듯 연신 카메라

를 셔터를 누르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이 코스모스는 일찍 개화하는 코스모스 품종이기도 하지만 미리 가온 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일찍 개화시켜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것이다. 이 외에도 핑의다리, 숙근사루비야, 꼬리풀 등 많은 정원식물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화단을 디스플레이 하였다. 한편에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용 제품들이 전시, 판매 되었는데 베란다 등에서 간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로우백(재배용기)과 각종 채소종자, 친환경 영양제, 재배네트, 소형 열정비닐 등이 전시되었고 '가든조아'를 통해서 많은 도시농업용 제품들을 선택,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농업은 각 지자체를 포함하여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휴식과 교류, 교육의 공간 등 삶의 터전에서 자연을 향유하고자하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꽃'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정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샘플화단을 통해서 좀더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숙근초와 고급 일년초를 이용하여 혼합혼성식재기법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였고 또한 국내특허에 이은 미국, 중국, 일본특허까지 획득한 국내 최고의 수직정원 '벽화수'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하였다.

우리꽃이 개발한 애기노랑금계국 시리즈

▶ 군식, 혼합식재 어디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미스제이

▲레온

▲파파야

금계국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잡초와의 경쟁에도 지지 않을 정도로 생육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하지만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어 이제 너무 식상해졌고 잡초성이 강하여 타식물과의 어울림이 어려운 식물이기도 하다. 금계국 품종중에서도 이런점을 보완한 우수한 품종이 3년전에 '우리꽃'에서 출시한 애기노랑금계국이다. 애기노랑금계국은 키가 작고 꽃이 노랑색을 띄며 화수가 많고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개화하는 수

종이다. 꽃이 장기개화하여 도로화단에 열식해도 좋고 혼합식재화단에 중간식물로 활용하면 더욱 좋다. 1차개화후 커팅해주어야 연속해서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현장에 많이 보급되어 고급 조경에 빠질 수 없는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꽃'에서는 현재의 애기노랑금계국을 업그레이드하여 애기노랑금계국 시리즈를 개발하여 이번에 일부 품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품종출원중인 품종은 3가지로 '미스제이'는 꽃이 노랑색 바탕에 전면에 연한 주황색이 깃들여 있는 품종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화색을 가지고 있다. 꽃색이 밝은 노랑색을 띄는 '레온', 진한 주황색을 띄는 '파파야' 등 다양한 애기노랑금계국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장기개화하고 화수가 많아 군식해도 좋고 혼합식재시 적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육 또한 매우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는 필요치 않지만 간혹 통풍이 잘 되지 않거나 하면 흰가루병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면 된다.

잎이 아름답고 생육이 강한 인동 분홍인동

▶ 적자색의 잎과 꽃이 모두 아름다운 덩굴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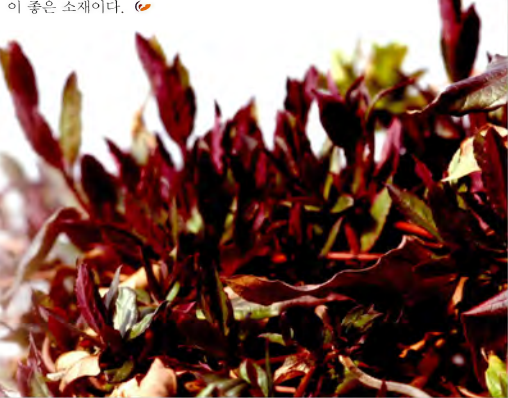
인동은 우리나라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굴식물로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덩굴수종이다. 꽃은 6~7월경에 피는데 꽃의 색상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은화'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중부권에서는 낙엽이 지지만 남부권에서는 상록을 유지하기도 한다. 물론 겨울상록성을 유지하는 인동품종도 존재한다. 인동도 많은 품종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인동과 더불어 꽃이 적색이고 줄기가 붉은 색을 띠는 붉은인동이 조경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품종이다. 특히 붉은인동은 재배조건이 까다로우며 매년 수유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종종 애를 먹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분홍인동은 붉은인동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적, 기능적면에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인동명품이다.

분홍인동은 생육적으로 매우 강건하고 빠르게 자란다. 특히 일반 붉은인동이 습에 약한 반면 분홍인동은 건습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잎도 매우 조밀하고 풍성하게 자란다. 잎은 적색을 띄며 특히 잎뒷면은 강렬한 적색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식물 전체적으로 적색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 일차재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꽃은 6~7월에 개화하며 적자색을 띤다.

잎과 꽃이 모두 좋아 단독식재해도 좋고 식재구간의 길이가 긴 경우 다른 인동류 또는 덩굴식물과 번갈아 식재해도 좋다. 좋은 잎과 꽃을 보기 위해서는 토심이 좋고 퇴비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너무 무성하여 가지치기를 해주고자 할 때는 늦가을부터 이른봄에 해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생육이 매우 강건하여 병해충에도 강하다.

덩굴성 식물로 아름다운 경관과 빠른 피복을 원할때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다.



로양에 이불을 덮어라! 산이불공법

세굴, 토사붕괴 이제 걱정 없습니다

(본 공법은 특허100807285, 1020090012423호의 적용을 받는 공법임)

▲인진 용정공원 한경

인공적으로 형성된 법면, 즉 절토면이나 성토면은 언제나 세굴이나 토사붕괴 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적 법면을 안정화시키는 여러가지 공법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생토, 코이어네트, 빗질가격 외에도 특화된 재료와 시공방법을 사용한 공법들이 현장에 시공되고 있다.

우리꽃에서는 법면의 토사층과 가장 유사한 재질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면을 완전 피복함으로써 법면안정은 물론 생태적, 경관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이불공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산이불공법은 말 그대로 이불을 덮듯 법면을 피복하여 강우시 빗물이 토사면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법면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피복재료로서 혼합상토와 LMF섬유(저용점섬유)를 혼합하여 만든 우리에코매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코매트는 기본 소재가 혼합상토로서 토사층과 유사하여 법면과 피복재간의 일체화, 보온·보습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종자파종, 식물식재 등 현장건조에 맞게 경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다. 종자파종시에는 우리법면혼합종자시리즈를 주변건과 어울리도록 취사선택하여 파종이 가능하다.

▲단면도

산이불공법 시공순서

▲시공전

▲우리에코매트포설

▲구입망설치

▲구입망설치완료

▲우리법면혼합종자 씨앗

▲시공완료

▲산이불공법

산이불공법은 면정리, 토복섬유 포설, 우리에코매트 포설, 구입망설치, 우리법면혼합종자 씨드스프레이(또는 플러그로 식재) 등 타사의 공법에 비해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법면안정화는 물론 경관적, 생태적 복원 및 효과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공법이다.

수직 난간의 신기술 정원 겨울이 오히려 아름다운 정원. 설치와 철거가 매우 간편합니다.

포켓난간

▲ 현지 다리고작에 설치된 사례

수직의 인공구조물에 녹색의 바람이 불고 담장이나 다리 난간 그리고 창가 등에 장식되는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 화분은 가격이 고가이고 다루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오히려 흉물인 게 사실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에나 쉽고 간편한 길이용 화분이 포켓가든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으로 왔다. 수직정원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꽃이 개발, 현장 적용 중으로 부직포와 지배수를 겸하는 라이너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기존의 투박하고 운반, 설치, 철거 등이 매우 곤란한 제품과는 차별화된 포켓형 길이 화분이다. 부직포를 재봉하여 만들어져 매우 가볍고 부피가 작아 운반, 보관, 설치 등이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피스만으로도 쉽게 고정되고 평면, 난간, 곡면 등의 어떤 형태의 구조물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대 혁신을 이루었다. 특히 도시, 아파트 베란다 혹은 실내 벽면 등 어떤 곳에도 간단히 설치 가능해 도시 가정원예용으로도 매우 좋은 제품이다. 특히 상추, 숙향, 고추, 토마토 등을 심기에도 좋아 종류별로 한, 두개씩만 심어도 작은 가족들이 아름다움과 재미를 즐기는 도시 생활원예가 가능하다.

옥상이나 벽면, 다리 난간 등 바람에 의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부직포 안감에 비닐소재의 라이너를 두어 수분을 적절하게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수분을 빨아올릴 수 있는 내피에 부직포가 다시 안착되어 있고 포켓의 벌어짐이나 식물이 많이 자라 너무 아래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주머니 고정 끈을 두어 3단계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외관의 부피가 작아 겨울 등에는 난방, 송악, 출사철 등의 상록성 식물과 꽃양배추 수호초 등의 초본류와 관목류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겨울정원으로든 손색이 없을 것이다.

우리꽃의 특허출원제품인 포켓가든은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과 원리가 간단하고 기발하게 적용되어 만들어져 효과와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 가격의 반값으로 기존제품의 일대 설치가로 구매 설치 가능한 제품으로 가격경쟁력도 매우 높다. 따라서 성능과 이용성 그리고 제품의 가격 등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탄생한 포켓가든을 주목해 주길 바란다. ☺

● 설치순서

1. 작업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식재하고자 하는 소재를 준비한다.
3. 모켓가든을 정해진 위치에 고정한다. 이때 가운데 부터 고정 후 좌우로 고정한다.
4. 점적 관수라인을 준비한다.
5. 점적 관수라인을 그림과 같이 구부린다.
6. 케이בל타이 등으로 고정 봉한다.
7. 관수라인을 내피와 외피사이 에 삽입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
8. 장기개화와 지속적인 양분 공급을 위하여 인화성 비료를 충분히 시비한다.
9. 토양을 토양이 잘 채워지도록 손가락으로 확인 하면서 채운다.
10. 주머니 고정끈 첫번째 구멍에 맞추어 홈을 반복 채운다.
11. 준비된 메인 식물을 자리의 중앙에 식재한다.
12. 식물을 안정적으로 잘 고정한다.
13. 메인 식물의 뿌리가 안정화 되도록 최우에 토양을 채운다.
14. 포인트 식물을 좌우측에 추가로 식재하여 분위기를 연출한다.
15. 식재가 완료되면 포켓의 외관을 잡고 약간씩 움직여 식물 전체가 안정을 잡도록 한다.
16. 미리 심입해 둔 관수라인을 메인관에 연결한다.
17. 관수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18. 관수라인이 바깥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마무리한다.
19. 단양 포켓가든 식재 완료 모습
20. 포켓가든을 연결하여 설치 시제한 모습

품종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2012년도 캘리포니아 신제품화훼품평회

California spring trials 2012 참가기

▲ 인화성 비료를 시비한다 ▲ 토양을 토양이 잘 채워지도록 손가락으로 확인 하면서 채운다 ▲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 봉한다 ▲ 관수라인을 내피와 외피사이 에 삽입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 ▲ 미리 심입해 둔 관수라인을 메인관에 연결한다 ▲ 관수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관수라인이 바깥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마무리한다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수출전락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코레옴시속 신품종과 패랭이속 신품종의 수출상용화> 프로젝트에서 우리꽃의 신품종들이 일본,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의 작은 회사에게 굳게 닫힌 듯한 문은 상록산디패랭이의 기능성과 경관성 그리고 우리드림의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 무늬별개미취 등의 한국 유전자원의 힘을 본 몇 해의 글자의 회사들에 의해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세계시장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직접 해마다 500 품종 이상의 신품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곳, 볼, 신젠타, 사카다 외 50 여개의 화훼회사들이 저마다 한 치의 양보없이 기량을 선전하는 '캘리포니아스프링트라이얼즈'로 직접 우리 품종을 홍보하고, 신품종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이번 참관은 우리꽃의 신품종들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미국 퍼시픽 플러그앤라이너사를 직접 방문하고, 다른 패랭이들과의 경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품종이상의 것을 보여준 품평회, 캘리포니아 스프링 트라이얼즈에서는 긴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마케팅 기법과 도시농업 두가지였다.

처음 발 디딘 Proven winner의 농장에 펼쳐진 식물들의 규모와 몇 십 가지가 넘는 신품종들을 보고 규모에 놀라었다. 그 다음엔 도대체 이 신품종들을 뭐가 어떻게 다른거지하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생산농가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신품종의 마운딩형이나 꽃꽂이 꽃대를 보고 감탄하거나 다른 지역의 전지와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토론에 열면 모습이다. 모든 장소에서 새로운 품종들, 좀 더 향상된 유전자원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결국에 기억에 남는 건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었다. 이곳에선 육종가들도 마케팅을 배우는 듯하다. 가는 곳마다 다른 마케팅 아이디어와 품목 선택이 매우 흥미롭고 시선을 잡았다.

실용성에서 재미와 흥미까지 디스플레이가 다양하였다. 패들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품종들을 배치하여 가는 곳마다 흥수처럼 돌아지는 품종들을 보다 더 쉽게 기억해내고 기억이 필요한 품종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채소, 많은 곳에서 채소류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

최근 삼사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농업의 열풍이 전세계에 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품종과 용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몇몇 회사에서는 눈에 띄는 화분제품들을 선보였는데, 식물+화분 패키지라고 해야할까? 함께 옵션으로 디자인하여 선보였다. 가정용 문화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예전에는 잘 없었던 현상인데 점차 식물과 화분 옵션이 묶여 하나의 제품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퍼시픽 플러그앤라이너는 패랭이 신품종 플랜트 특별전과 분화디스플레이로 돋보였다. 색상군의 배치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단순한 분화제품뿐만 아니라 화분정원자체가 이 곳에서도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수직정원이 대세임을 말하러워 없다. 화려한 국화시리즈와 콜레오스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도 인상적이었다.

소비자들의 기대와 필요 그리고 질문에 각 회사들은 저마다의 대답을 보여주었다. 물론 몇몇 형식적인 대답도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 건너와 함께 디스플레이를 한 경우는 어느 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완벽하게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종가들과 생산농가가 육종과 생산이외에도 마케팅을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찾고 있는 꽃을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산하고 개발하는 꽃을 소비자들에게 사계절 소비하는 방식, 그런 효율구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

▲ Paul Bonn Panora에 대해 디스플레이 ▲ 인화성 비료를 시비한다 ▲ 토양을 토양이 잘 채워지도록 손가락으로 확인 하면서 채운다 ▲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 봉한다 ▲ 관수라인을 내피와 외피사이 에 삽입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 ▲ 미리 심입해 둔 관수라인을 메인관에 연결한다 ▲ 관수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관수라인이 바깥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마무리한다

화색연출

화이트(흰꽃) 품종을 중심으로



군식용

도로변에 군식하거나 열식할 경우 하얀색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고자 할때 적용하면 좋고 일반적으로 장기간화하거나 생육이 강건한 품종이 좋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은 지역에 군식할때에 다른 화색의 품종과 대비되게 연출하면 흰색의 느낌이 전체를 받쳐주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경관을 보여 줄 수 있다. 실제로 대면적에 양귀비를 파종할 때 안개초를 함께 파종하거나 배두리를 안개초로 주변 더욱더 적색의 양귀비를 돋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된다.



▲꽃들레아 화이트



▲실류카 브라이트예피



▲후룩스 백설



▲가뭇머리



▲가우라



▲에키나 스노우

혼합식재용

혼합식재화단을 조성할 때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적인 느낌을 흰색으로 주고자 한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식재하는 모든 품목을 흰색꽃으로 하거나 70~80%정도만 흰색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식재하고 나머지는 연한 파스텔톤의 색상으로 연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일의 색감이 은은과 같은 회색느낌의 잎을 가진 품종을 함께 식재해도 기대하던 순백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혼합식재시에는 런너형의 식물은 가끔적으로 피하고 포기형의 식물을 이용해서 식재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흰행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화상매랭이 참이슬



▲가우라



▲가뭇머리 화이트



▲구름너도부추



▲행악다리



▲무늬익새



▲은쑥



▲물쭈 스노우



▲무늬염주그라스



▲시모나리아 코튼



▲숙근사루비 화이트



▲아스타 화이트



▲아스텔레 글로리아



▲고려꽃 화이트



▲꽃백합 나보나



▲펜스테몬 상록종엽



▲후룩스 백설



▲꽃잔디 화이트



▲흰꽃꽃



▲흰하늘매발톱

석축매지용

석축사이에 철쭉, 화양목 대용으로 알맞은 다양한 식물이 있다. 이들을 적절하게 매지용으로 적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석축매지용으로 흰색의 꽃을 피우는 수종은 다음과 같다.



▲돌단풍



▲실류카 브라이트예피



▲흰꽃조팝



▲꽃잔디 화이트



▲물장미 화이트



▲물쭈리 화이트



▲왕상목매랭이 참이슬

도시농업 제대로 하기-3 여름철 텃밭에 재배가능한 채소류의 추천 및 재배관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팀
정명업 박사
031-290-6149/jeongml@korep.kr



요즘은 도시농업 붐을 타고, 너도나도 주말농장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싱싱한 무공해 채소를 식탁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텃밭에서 손수 가꾼 싱싱한 상추와 쫄갓 씹은 온가족이 함께 하는 보람과 행복의 쉼이 아닌가? 거기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진 채소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맛있는 자녀의 학습 체험장이 된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과학적 사고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때마침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마다 텃밭채소 가꾸기를 위한 주말농장 등의 화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텃밭의 경우 봄철에는 상추, 쫄갓, 아욱 등 엽채류, 토마토, 가지, 고추 등 과채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종류를 이용하여 텃밭을 꾸밀 수 있다. 그러나 봄철을 지나 여름철 장마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엽채류는 수확을 마치고 여름철 작물을 파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름철 텃밭에서 재배가 가

능한 채소류는 매우 적을 뿐더러 해충의 피해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잎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진다. 도시텃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더운 날씨에 관리가 소홀해지며 물 공급이나 텃밭관리가 원활치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텃밭을 살펴보면 가을배추나 무 등 김장 채소를 재배할 때까지 온통 잡초 밭으로 변하여 아까운 땅을 놀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여름철에 재배할 수 있는 채소로는 전통적으로 열무, 알타리, 엇갈이배추, 잎들깨 등이 주였으나, 청경채, 여름시금치, 여름상추, 엔다이브, 치커리, 백경채, 여름당근, 메밀순 등도 재배가 가능하다.

여름철에 텃밭에서 주로 재배되는 열무, 엇갈이배추, 청경채 등 배추과 작물은 자라는 속도가 빨라 파종 후 20~30일이면 수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물은 해충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가는 망이나 피복용 부직포를 이용하여 막 덮기를 하므로 물리적으로 해충과 강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많

이 이용되고 있다. 여름철 해충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채소류로는 상추류와 치커리류 및 근대류 들 수 있다. 이들 중 오크상추, 적치마상추, 그린로메인 등은 7월 중순에 파종할 경우 파종 후 20일경부터 수확을 하여 어린잎 채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개월 정도 키우면 포기채로 수확할 수 있다. 엔다이브, 아욱, 백경근대, 적치커리 등은 파종 후 30일 후에는 포기로 수확이 가능하며 여름철 밭아울도 높다. 특히 엔다이브, 적치커리는 아래 잎을 차례대로 수확할 경우 2개월 이상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으며, 아욱은 적심을 하면 결가지가 나와 20일 이내에 다시 수확할 수 있다. 요즘은 여름철을 겨냥한 상추품종 중에 한발청치마상추(농우종묘)는 만추대성으로 여름철 재배도 가능하다. 만추대성 상추는 추대에 필요한 적산온도가 일반상추의 1,700℃ 보다 훨씬 긴 2,500℃ 정도로 길어 여름철에도 추대가 늦게 되어 5월 상순에 파종, 또는 5월 중순경에 모종을 아주 심으면 6월 상순부터 8월 중순경 추대하기 전까지 수확할 수 있다. 적산온도란 하루 평균 온도를 다 더한 값을 말하는데 상추의 일반적산온도인 1700℃보다 낮아지면 상추 맛이 떨어지게 된다. 적산온도가 높아지면 상추대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모든 영양분들이 그곳으로 집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상추잎의 영양분이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추대가 늦은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열무의 경우 아주 잘 자라 30일 이내로 자랄 정도이지만, 충해발생이 생겨 아주 작아서 잡지도 못하는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는 경우가 많아 이파리 전부를 갉아먹는 경우도 발생한다. 텃밭에는 농약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고르거나 부직포 등의 터널을 만들어주고 충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이용할 수 있는 종류로는 여름시금치, 메밀 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있겠는데 미리 육묘해 두었다가 정식하면 충분한 수확이 가능하다. 또한 김장채소를 심지 않을 경우 시금치, 여름당근과 같이 가을까지 가는 채소류를 재배하거나 반대로 11월까지 수확이 가능한 토마토, 가지, 고추 등 과채류의 경우도 장마 후 생육이 불량하거나 병해가 많이 발생한 텃밭의 경우 8월 중순경에 모두 수확하고,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미리 육묘하였다가 정식하여 재배하는 것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7,8월은 장마 시기이므로 터널을 만들거나 햇빛을 가리는 검은 구멍이 있는 한냉사를 이용하여 광도와 온도를 낮추어서 재배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사진자료

▶ 여름철 혹서기에 재배가 용이한 채소의 생육 모습



▲그린로메인상추



▲적치마상추



▲아욱



▲오크상추



▲엔다이브



▲백경근대

사진자료

▶ 여름철 배추과 작물 재배 시 막덮기 재배전경



▲부직포 피복재배(한국)



▲망사피복재배(일본)

표 1 ▶ 여름철 혹서기에 재배가 용이한 몇가지 채소류의 수량 및 충해 정도 (201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명	파종일	수확일	생체중 (g/m ²)	충해 정도 (0-5)
오크 상추	7. 8	7. 28	596	0
적치마 상추	7. 8	7. 28	661	0
그린로메인 상추	7. 8	7. 28	734	0
엇갈이 배추	7. 18	8. 7	1,325	2.5
열무	7. 18	8. 7	2,185	3.0
청경채	7. 18	8. 7	917	2.5
아욱	7. 18	8. 22	764	0
백경근대	7. 18	8. 22	966	0.5
엔다이브	7. 18	8. 22	1,046	0



꽃밭본능, 우리는 총대신 꽃을 들고 싸운다

게릴라 가드닝

리처드 레이놀즈 지음

게릴라 가드닝이란, 한마디로 불법이나 무법적으로, 혹은 합법적이지 않게 땅의 땅, 공유지 등을 꽃밭과 텃밭으로 가꾸는 것이다. 황량한 땅을 보면 누구의 땅이든 녹색과 꽃으로 채우고픈 욕망이 생긴다면 당신포 게릴라 가드너로서 자질이 있다. 꽃밭본능, 총대신 꽃을 들고 싸우는 아름다운 전쟁에 참가해보지 않겠는가?

2004년 리처드 레이놀즈는 자신이 세운 10층짜리 아파트 단지 앞 쓰레기통이 가득한 화단이 눈에 밟혔다.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스스로 총대를 메기로 했다. 새벽 두시에 일어나 쓰레기통을 치우고 땅을 파고 빨간색 시클라멘, 라벤더와 캐비지트리 세그루를 심었다.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만일 대놓고 한다면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다.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두기에 꽃밭 가꾸기가 너무 재밌었다. 친구들과 함께 이런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열고 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올렸다. 이후 GUERRILLAGARDENING.ORG라는 도메인을 확보하고, "게릴라 가드닝"을 검색엔진을 둘러봤다. 여기저기 많은 웹사이트가 많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꽃과 나무가 숨쉬는 공간을 원했고, 그도 거대한 녹색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에 놀라웠다. 현재 그의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7만여 명이고,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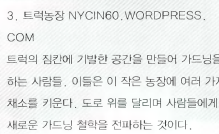
전부터는 해마다 5월 1일이 되면 북반구 전역에서 세계 게릴라 가드닝의 날을 기념해 동네 곳곳에서 씨앗폭탄을 터트린다. 꽃밭 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 같이 꽃씨만 심는 것이 아니다.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땅을 가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한 가드닝을 넘어 하나의 시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이들, 보도블럭 틈새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한 줄기 잡초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이들, 폭력에 의해 희생된 자와 장소를 기리기 위해 거리에 꽃을 심는 이들, 이 외에도 산업화된 농업에 대한 먹거리 투쟁하는 이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지은이는 게릴라 가드닝의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식물이 우리 공동체를 생태적, 사회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하고, 관습이나 법률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공의 영역을 다르게 보고 그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북돋는 것이라고 말한다.

게릴라 가드닝 활동은 결국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도시 거주자들을 즐겁게 한다. 또한 활동에 동참할 경우 공동체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결국 모두가 원인하는 정경인 셈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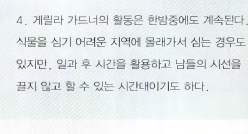
1. 황폐한 도로를 황기로 뒤덮다 - 웨스트민스터 라벤더 필드
[HTTP://WWW.CONSERVAIONFOUNDATION.CO.UK/](http://www.conservaionfoundation.co.uk/) 두 개의 구획 사이에 모호하게 자리해 누구도 가꾸지 않았던 입자없는 땅은 내버려져 침초들과 쓰레기로 덮힌 채난 지역이었다. 게릴라 가드너들이 2004년개의 라벤더를 심었고, 이제는 문전자들이 신초중에 멈춘 아름다운 황기가 가득한 곳이 되었다. 라벤더는 수확되어 라벤더 베개로 제작되어 더많은 게릴라 가드너들이 쓰이는 자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3. 트럭장 NYCIN60, WORDPRESS, COM
 트럭의 창문에 기발한 공간을 만들어 가드닝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 작은 농장에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운다. 도로 위를 달리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드닝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다.



2. 도로 틈새에 피어난 미나카네 ~ 구덩이정원사 [HTTP://WWW.URBANHOSTMEDIA.COM/](http://www.URBANHOSTMEDIA.COM/)
 화단이 아닌 낡아서 벗어난 마스팔트의 교열이나 구덩이, 틈새 등에 정원을 꾸민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이웃에게 생기 있는 일상을 선물하는 프로젝트. 낡고 일기진 작은 공간을 미나카네으로 꾸미는 푸른 아이디어가 도심 속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를 선물한다.



4. 게릴라 가드너의 활동은 한밤중에 계속된다.
 식물을 심기 어려운 자리에 몰래가서 심는 경우도 있지만,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하고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녹화를 위해 종자를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 씨앗만 하고 끝내거나 현장여건에 따라 씨앗과 더불어 밭짓, 코아네트 덮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씨앗과 밭짓, 코아네트 덮기의 이원화된 공정을 일원화하여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 식생거적 SM시리즈이다.

식생거적 SM시리즈는 종자와 종이배지, 황마네토, PE네토로 이루어지는 다층구조를 형성하며 다층구조 사이에 종자가 포함되어 있어 한번의 시공으로 균일한 종자발아와 조기녹화, 차별화된 경관조성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구성요소에 따라 표준형과 보강형이 있다. 표준형은 종자와 종이배지, 황마네토로 이루어졌고 보강형은 여기에 PE네토가 보강되어져 있어 경사도와 현장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생거적 SM 시리즈는 물형태로 무게가 가볍고 퍼서 고정시키는 작업공정이 매우 간편하고 토양미생물에 의해 스스로 자연분해되며 식물생장에 유용한 유기물로 흡수되어 식물에 유용한 환경을 제공, 환경친화적 소재이다. 또한 종자를 다층구조로 덮어 주고있어 습과 온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 빠른 발아를 유도하여 조기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식생거적 SM 시리즈가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법면 혼합종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경관성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혼합종이란 많은 요소의 자연환경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자를 혼합, 적용하여 인간의 목적에 알맞게 효과를 창출하도록 여러 가지 식물들의 종자를 혼합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식물은 국지적인 환경에 있어서 적응성과 여러 종류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쟁과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변이나 습윤지, 건조지 혹은 법면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아니라 지역적인 자연 환경에서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도록 혼합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혼합종의 환경생태적으로 필수조건은 장기적 유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적용이 편리하여야 하며 토양안정화가 빨리야 한다. 그리고 계절감있는 경관연출이 가능해야 하며 천이가 자연스럽고 화려함과 기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는 혼합종 개념이 없던 2002년 출시이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안정된 효과를 보여주는 혼합종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종자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식생거적 SM1은 우리법면 1호를 이용한 우리의 향토종자와 관목을 적용한 산림복원용이고 SM2는 우리법면 2호를 이용한 야생화와 관목류를 혼합한 생태하천용이며 SM3와 SM4는 각각 우리법면 3,4호를 적용하여 26종을 혼합,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고 화려함과 생명력, 비관리의 대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식생거적 SM시리즈를 통해서 한층더 편리하고 안정된 경관조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



▲시공직후



▲완성된 경관



▲시공모습



▲완성된 경관

7월 20일 우리꽃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꽃 홈페이지 & 도시원에 전문쇼핑몰 가든조아 OPEN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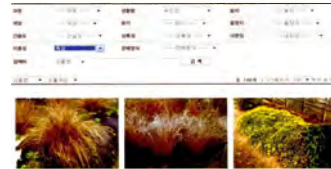
www.uriseed.com

조경 식물을 현장에서 찾고 싶다면? 조경인을 위한 **우리꽃의 맞춤형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맞춤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 ① 우리꽃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www.uriseed.com
- ② 메뉴 상단의 카탈로그를 클릭하세요.
- ③ 과명, 생활형, 높이, 색상, 화기, 음양지, 간습도, 상록성, 내한성, 이용성, 판매방식까지 모두 11가지 분류키로 원하는 맞춤형색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④ 물론, 식물명으로도 검색가능합니다.

카탈로그



강쟁!!

회원가입하시면 검색하신 식물을 온라인전체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단가견적사와 설계단가견적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원에 전문 온라인 쇼핑몰

www.gardenjoa.com

가든조아

Happy Garden Story of You and I

가든조아는 우리꽃에서 런칭한 도시원에전문 쇼핑몰로서, 도시소비자에게 맞발, 베란다, 주말농장, 정원 등에 필요한 정보와 상품을 직접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원에산업과 함께 성장하여 도시에서 누리는 녹색생활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 채소 및 초화, 야생화 묘종과 종자
- 정원 및 텃밭 관리용품
- 실내정원조성 용품
- 도시원예를 위한 모든 자재 포함



- 도시생태문화
- 시민에게 감성적
- 농업 문화 전달
- 도시원에 아카데미
- 세계의 도시원에 문화체험



- 도시농업 경험
- 텃밭 및 정원 관리 요령
- 식물의 재배 정보
- 유기농 및 로컬푸드 정보



- 텃밭과 정원 문화를 통해
- 가까운 이웃간의 소통
- 가족 세대간의 소통
-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티 생성

